

# 시민단체, 시험문제 유출 엄정 대처 촉구

### 광주 5개 단체, 시교육청 앞서 기자회견 열어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기밀고사 수 학문제 일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 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 분야 시 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엄정한 대처 를 주문하고 나섰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전교조 광 주지부,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학

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청 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5개 단체는 9일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내신 성적이 핵심 전형 수단이라는 점 에서 이번 사건은 더더욱 무겁고 엄중 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 교육청의 학업 성적 관리와 감독의 한 계가 노출됐고, 심지어 교육청이 고교 기숙사와 교육력 제고사업을 통해 성 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한 교내 동아리 를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 육현실이 근본적 원인이고, 대학 서열 화와 입시 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대학의 서열이 곧 권력과 부(副)의 배 경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 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체 고교 교무·학사 감 사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신 관리지침 준수 ▲기숙사· 교육력 제고사업·교내 경시대회 등 을 통한 성적우수자 특혜 여부 ▲시험유 출 의혹 학교 관계자 연방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 **최남규 기자**

# 광주 대낮 두 살 배기 인질극 강도 3명 영장실질심사 앞서 '묵묵부답'

흥기로 영아와 어머니를 위협해 금 품을 빼앗은 강도 3명이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 해 법원으로 향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들은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김모(34)·조모(30)·한모(27)씨를 호송차에 태워 광 주지법으로 향했다.

이들은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 리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은 두 살 배기 남자 아이를 인 질로 잡은 이유와 범행 동기 등을 묻 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가정집에 모자·마스 크로 얼굴을 가린 채 침입, 흥기로 생 후 16개월 된 아이와 어머니 A씨를 위 협해 귀금속 6점(300만 원 상당)과 157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한씨는 아이 를 인질로 붙잡은 뒤 A씨에게 스마트 폰 앱으로 현금 서비스와 대출 신청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 망을 봤으며, A 씨가 은행 2곳에서 157만 원을 대출 받아 집으로 돌아오자 돈을 빼앗아 조 씨·한씨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는 4일 오후 3시15분까지 조 씨·한씨에게 붙잡혀 있었으나 다행 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두 달 전 특정 인터넷 카페 에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을 본 김씨 와 지난날부터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김씨는 최근 '돈이 너무 급 하다'는 글을 올린 한씨를 범행에 끌 어들였고, 모 채팅 어플로 연락을 주 고받다 범행 전날인 지난 3일 광주에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 도박비·비트코인 투자 탕 진 또는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 던 이들은 당초 금은방을 털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달 12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 수법을 따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방충망 만 쳐놓은 복도형 아파트의 여러 가구 를 훔쳐낸 뒤 흥기 위협, 망포기 등 역 할을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 "주민 동의 없는 금호 아파트 신축 반대"

### 순천 라송 입주민들

"주민 동의 없는 신축 아파트 결사 반대", "공정회 없는 건축허가 철회하 라"

지난 8일 순천시청 앞에 주민 100 여명이 잔뜩 화가 나 시 행진을 질타 했다. 이들은 서면 라송센트럴카운티 입주민들, 주민들은 순천시의 '금호 어울림 더파크 아파트'에 대한 건축 허가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라송센트럴카운티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라송비대위)는 이날 결의대회 를 열고 "주민 동의와 의견청취, 설명 회 없이 이뤄진 건축허가는 원천무효 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허가 과정에 서 절차를 무시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며 허가 철회와 새로운 대안 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기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사업설명회를 통해 우리 아파트 인근에 금호아파트 건축 소식 을 처음 접했다"며 "하지만 해당 아파 트에 대한 건축허가는 이미 이뤄진 상 태로 절차상 크게 잘못됐다"고 분개 했다.

박 위원장은 "금호어울림 더파크는 15층 규모로, 13층의 라송아파트 앞 42m의 근거리에서 건축될 예정이다"며 "조망권 침해와 분진, 소음 등의 피해 가 우려되는데도 주민설명회나 사업 설명회 등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제"고 지적했다.

라송비대위는 행정소송과 공사금 지가처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주 전 체 의견을 취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 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주민 민 원이 우려돼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사업계획서 승인 조건으로 해 지난달 18일 사업설명회가 열린 것이 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주와 주민 들간 중재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호박벌의 꽃비행** 다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인근 도로가에서 호박벌 한 마리가 코 스모스 주위를 날아다니며 꿀을 따고 있다.

# 불법튜닝 등 눈감아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 적발

### 환경·국토부, 271곳 특별점검 결과발표

차량 불법개조(튜닝)를 묵인하거나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을 일삼던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 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세 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14일부터 한 달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 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 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관법 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210곳과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61곳이다.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당국에 적발 된 곳은 총 47곳이다. 점검 대상 6곳

중 1곳 꼴이다. 지난해 하반기(61곳)보다는 감소한 수치로,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단속기 관과 검사소 간 교육이 강화되면서 무 지 또는 실수에 의한 위반 건수가 줄 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 튜닝과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건수가 32건(68%)으로 가 장 많았다.

검사기기 부실 관리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6%),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미충족 상태로 검사시 행 2건(4%), 타인 명의로 검사업무 대 행 1건(2%)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 라 10~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46 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 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합격 률만 84.2%로 교통공단의 72.9%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자동차관리 법에 따라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 업자로, 전국에 총 1700여 곳이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 부 사업자들이 여전히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여겨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함 께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 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런판결 저런판결**

## ‘교회서 4살 여아 폭행 사망’

### 여중생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인천의 한 교회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아를 폭행한 혐의로 기 소된 여중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 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 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10년, 단 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사건 양형 조사 결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배경, 나이, 성 행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양 변호인은 이날 "정신 지체가 있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사망 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이후 우울증에 걸려 눈 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변호 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정말 잘못 했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 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B(4)양 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다 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 로 옮겨졌으나, 결국 한 달 만에 숨 졌다.

A양은 B양이 몸을 뒤척이는 등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자 화끈하게 폭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 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에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 조기 발견, 자립치료, 영민 민학교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